

예술인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사업 안내·예술인활동증명 접수 대행 서비스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 1차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의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예술인들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예술인복지증진센터의 운영사업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더불어, 현재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활동증명 접수 대행 서비스를 현장에서도 받아 볼 수 있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진행된 제1차 '찾아가는 안내서비스-일사천리' 서비스는 폭우 속에서도 15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후 5인 이상 예술인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안내서비스-일사천리'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 참여를 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 1차 사업을 진행했다.

하는 도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은 이메일(jb_7447@hanmail.net)이나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0~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장애·비장애 예술인 창작 협업 모임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 10개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023년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장애·비장애 예술인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것으로, 장애·비장애 예술인들의 협업 창작활동을 통해 상호간의 예술적 성장과 경계를 허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전북을 기반으로 한 장애·비장애 예술인으로 구성된 10개 팀을 모집하며, 창작 협업 활동을 위해 1개 팀별로 4백만원의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자는 장애인 2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단체인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 경력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룹 내 전체 구성원 중 1명 이상만 예술 활동 경력을 증빙하면 된다. 접수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확인 후 18일까지 전자우편(mal-js@jtc.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장애·비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협업을 통해 도내 장애인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 기회가 확대 되길 바란다"며 "도내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문화 상권 활성화·문화 향유 기회 확대 협업

전주한벽문화관-전주한옥마을상인연합회 손잡고 지역 관광 활성화 나서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전주한옥마을상인연합회(회장 이석동)와 손잡고 지역 관광 활성화 나섰다. 이는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의 한옥마을 방문에 대비한 사전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마당창극 '오만방

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홍보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동시에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이석동 회장은 7월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전주한옥마을 상인 회원들을 위해 비즈니스 영어 아카데미와 예절교육을 진행한다.

전주한벽문화관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상인연합회와의 협업은 지역 문화 상권 활성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주한벽문화관은 다양한 문화행사 및 공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문화 예술의 가치를 전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활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한벽문화관(j.tarkr) 누리집이나 전화(063-280-7081)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in 군산'

군산시립교향악단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모차르트 호른협주곡을 오는 20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제152회 정기연주회는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과 작품에 대한 뛰어난 해석력을 지닌 객원지휘자 강석희의 지휘와 함께 완벽한 사운드와 하모니를 이루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의 환상적인 호흡이 기대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른리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석준 교수의 모차르트 호른협주곡 협연은 평소에 보기 드문 연주로 색다른 공연이 될 예정이다. 첫 무대는 모차르트가 친구이자 동시대 최고의 호른리스트인 요제프 로이트게프(Joseph Leutgeb)를 위해 작곡한 호른 협주곡 4곡 중 호른의 진가가 드러나는 '호른 협주곡 4번'을 연주한다. 경쾌하고 화려하며 리드미컬한 1악장, 노래하듯 여유로운 선율이 편안함을 주는 2악장, 경

쾌한 반주 리듬이 말을 타고 동물을 쫓는 사냥 풍경을 떠올리게 해서 '사냥의 파날레'로 불리기도 하는 3악장을 통해 '오케스트라의 중재자'라 불리는 호른의 매력을 만나 볼 수 있다. 공연의 대미는 '운명교향곡'으로 불리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장식한다. 가혹한 운명과 싸우는 베토벤의 음악적 표현을 담고 있는 곡이다. 첫 네 음만으로도 강렬한 창작적 상상으로 좌중을 압도한다. 클래식음악의 매니아가 아니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운명교향곡'은 어두운 운명을 이겨낸 그 환희의 감동으로 불굴의 의지를 가르쳐주며, 베토벤의 내면적인 충동과 역경을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역사상 위대한 두 거장과 두 걸작의 음악적 대면을 통해 우리 모두를 연결 시키는 음악의 힘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명곡들로 준비한 만큼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군산=김판곤 기자

세대 갈등 해소 위한 소통 특강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 초청 진행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정정희)는 15일 센터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도내 청·장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차이 나는 클라스, 차이 나는 세대 공감 토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7년째 이 사업에 참여해 해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로 특강 및 토크 콘서트, 퍼실리테이션 등을 진행했다. 올해 주제는 세대 갈등으로 정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라떼, 폰대' 단어와 함께 세대 갈등이 본격화되고,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고, 위계질서 또는 서열을 수용하는 기성세대와 '나 자신'이 더 중요하고, 수직적 서열에 반감을 가지는 MZ세대의 차이는 세대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센터는 기부장제에 익숙한 장년세대와 MZ세대의 통합을 위한 이해와 실들의

갈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를 초청해 세대 갈등이 부각된 원인과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특강 참여자의 30% 이상이 20-30대, 60% 이상이 40-50대로, 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세대의 경우 직장의 상하관계 또는 결혼, 출산 등에서 느끼는 세대갈등을, 장년세대의 경우 직장의 상하관계 또는 가정의 부모자식 관계에서 느끼는 세대 차에 대해 알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답했다. 정정희 센터장은 "서로 다른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청·장년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김건우 교수,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장 임명

전주대학교 김건우 교수(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장 임명됐다고 전했다. 김건우 분원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석사를 마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구소(고전번역교육원 전신) 연구부와 상임연구부를 졸업하고, 현재 전주대학교 호남권거점번역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고전번역교육원은 교육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한문 고전과 문헌을 정리·번역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전주분원은 호남권 유일의 한문고전번역 공공교육기관으로 1999년 개원했다. 한편 매년 선발된 고전번역교육원 학생들은 3년 과정 동안 사서삼경, 소학, 고문진보, 통감절요, 춘추좌씨전 등 고전 과목을 두루 배운다. 또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초반, 서예반,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